고슴도치와 여우를 합친 유형

(잠언 30:1~5)

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고슴도치와 여우를 합친 유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고슴도치와 여우를 합친 유형'

2600년 전인 7세기 경 그리스의 시인 아르킬로코스(Archilochos)가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하나의 큰 것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주된 의미는 여우가 고슴도치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인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1909~1997)은 이 말을 인용해서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고슴도치형 인간과 여우형 인간을 나누고 톨스토이를 고슴도치형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여우형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여우의 탁월함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민첩함이 있고 교활한 꾀와 재주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가시를 세우는 한 가지 재주 밖에는 없습니다. 여우가 자신의 장점을 살려 여러 가지 전술로 살아가지만, 고슴도치는 오직 가시방패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싸움은 어떨까요? 고슴도치가 방심한 틈을 타서 여우는 단번에 치명상을 입히고 잡아먹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우의 노림수를 모르는 고슴도치는 느릿느릿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여우가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숨죽이고 기다리던 여우는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온 고슴도치를 재빠르게 덮칩니다. 그런데 위협을 느낀 고슴

도치는 순간적으로 몸을 말아서 방어하기 때문에 교활하고 치밀한 여우의 공격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우는 고슴도치의 가시에 코를 찔려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다양한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우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제나 단순무식한 고슴도치가 승리합니다. 이러한 역설적 관계를 이사야 벌린은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을 통하여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여우형 인간은 세상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 대해 두루 살피는 유형입니다. 지식을 모으고 분석하고 지혜를 짜내지만 다양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혼란과 방만함도 생겨납니다. 통일된 개념을 가지지 못해서 행동의 일관성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고슴도치는 단순무식해보이지만 일관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대면합니다. 고슴도치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가시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에 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 돈 배우자 자녀를 비롯한 가지각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형 인간은 이러한 문제들을 한 가지 방법으로 맞이합니다. 여우형 인간은 문제마다 적합한 해답을 내기위해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분석하여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슴도치형 인간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바로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습니다.
이사야 벌린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고슴도치형 인간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도 이처럼 지독한 고슴도치는 달리 없을 것입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톨스토이는 고슴도치형 인간이 되기를 바랐지만 여우형 인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형 인간이 참다운 인간형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방면에 걸친 관심과 뛰어난 자질이 그것을 가로 막았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그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소설을 쓰려면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 총망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톨스토이는 스스로가 원했던 단순명쾌한 고슴도치형 인간에 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래적으로 여우형 인간으로써 살아가는 동안 삶은 피곤하며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고슴도치형 인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먼저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사는 이유는 문제 해결 여부가 기쁨과 만족의 궁극적 원인이 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낼 때에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이 생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슴도치형 인간은 그 자체로는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함으로써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여우의 꾀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지략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여우형 인간의 특징도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게 합치되어 나타납니다. 역사학자 이사야 벌린의 말대로라면 마치 톨스토이가 꿈꾸던 모습과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장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으므로 그 측근에도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굴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으리라 추측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뜻밖에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이런 잠언을 남길 정도로 지력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 스스로를 짐승으로 비하했다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비하될 만한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짐승과 같은 수준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타인에게서 찾는다면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므로, 스스로를 짐승으로 비하시키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살아있고 굶주림을 느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굴은 이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이 공통점 안에서 드러납니다. 짐승은 육체의 굶주림만을 느끼며 평생 땅을 바라보며 먹잇감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한편 사람도 굶주림 때문에 움직입니다. 아굴은 '굶주림'이라는 한 가지 개념을 통해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찾아냅니다. 다만 굶주림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차이점도 생겨납니다. 인간은 육체의 굶주림과는 다른 마음의 굶주림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굶주림이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차이점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짐승 수준으로 격하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은 곧 모든 인간은 여차하면 스스로를 짐승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배부름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면 짐승과 인간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배부름을 위해서 살고, 짐승도 평생을 배부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종족번식의 본능을 비롯한 다른 특성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굴은 이 점에 집중해서 인간과 짐승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짐승에게는 없는 마음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대로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은 또한 짐승으로 격하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에서 사람의 총명은 곧 사람다움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에 의존할 때에 짐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났다면 부모는 아기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이것이 얼핏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결혼하여 17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이렇게 육체로 접하는 세상의 가치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기를 안고서도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기에 앞서 우선 사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총명은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마음의 굶주림이 채워질 수 있음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육체의 굶주림을 따르고, 인간은 여기에 더해 마음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인간을 차이 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굶주림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사람의 총명 즉 사람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면서도 짐승의 삶을 살아갑니다. '돈 많이 벌어야겠다, 멋진 사람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짐승의 삶이라니 무리한 소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이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이유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접하는 것으로부터 마음 굶주림의 해결법을 찾고 있기에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도 스스로를 짐승으로 칭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관점에서 지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굴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지혜의 잠언을 남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어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과 같습니다.
아굴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예시로 삼아 인간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한 가지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마음의 굶주림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고슴도치형 인간처럼 한 가지 개념으로 인간을 구분하고, 한 가지 개념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보낸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는 이유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뿐입니다. 여우형 인간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전문가도 찾아가며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보낸 고슴도치형 인간이라면 다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에 대해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의 해결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 무식해 보이는 이 한 가지 생각이야 말로 아굴이 말하는 사람의 총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땅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고슴도치형 인간으로 살기를 고집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우의 꾀와 같이 다방면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말씀도 이전에 보았던 말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른 측면을 통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사람을 구분한 것은 굶주림의 문제였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같은 점은 굶주림으로 인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는 달리 마음의 굶주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육체로 접하는 것들로 마음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총명은 바로 마음의 굶주림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마음의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는 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됩니다. 고슴도치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가시를 세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움으로 만사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24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고슴도치형 인간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지혜자조차도 고슴도치형 인간이 여우형 인간을 이김을 알고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은 별나고 다양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공부가 아닌 십자가로 사는 삶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은 십자가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까지 여우형 인간의 체질을 강화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십자가를 삶에서 생활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한다는 총명이 유지되면 삶에서 접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고슴도치형 인간이 될 때에 여우형 인간과 적절하게 연합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 마음의 굶주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해결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십자가를 붙잡고 고슴도치처럼 살게 하여 주심으로써 여우의 수많은 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